



李柱源보건국장, 寄協初度순시

— 지난 6월29일, 기협본부 —

신임 李柱源 보사부 보건국장은 지난 6월29일 오전 10시 趙炳倫 만성 병과장을 대동하고 寄協본부 및 서울 지지부를 초도 순시했다.

寄協에 도착한 李보건국장은 蘇鎮璋 부회장, 林漢鍾 이사, 본부 안사무총장, 부실장들의 안내를 받았다.

安商玉 사무총장으로부터 寄協現況을 보고 받고 각종 유인물 전시물을 돌아본 후 서울지지부 검사소도 시찰했다.

시찰을 마친 후 李국장은 「기협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더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안총장의 브리핑광경(上)
홍보용 기생충 진열장을 돌아보고 있다(下).



“集團檢査로 早期발견, 早期치료”

—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



徐丙高회장 記者회견

서병설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은 지난 6월24일 健協현판식을 끝낸 후 8개 의료전문지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회견을 갖고 건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했다.

徐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健協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직장별 학교별 주거별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집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疾病을 조속히 발견하여 조기퇴치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발견되는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뢰하여 전문적인 진

료를 받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서 얻어지는 각종 질병의 통계자료는 국가의 정책자료로서 제공하여 보건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60년대에 일본 기생충예방회가 예방의학 중앙회로 탈바꿈하여 각종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집단검진한 결과 현재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健協의 발족은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발족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의료장비와 기자재는 일본 예방의학 중앙회, 일본기생충예방회, 名古屋公衆의학연구소 笹川財團의 협력과 국고보조로서 충당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언론기관 여러분의 배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